

아quem주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요한 16,15)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무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바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르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웨이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타르 묵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미사를 시작하며 사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 하고 삼위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은총과 사랑과 친교의 원천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미사에 참여합니다.

• 입당송

• 제1독서

잠언 8,22-31

• 화답송 시편 8,4-5.6-7.8-9(◎2ㄱㄴ)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 우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빚으신 하늘하며,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

○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 제2독서

로마 5,1-5

• 복음환호송 묵시 1,8 참조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 알렐루야.

• 복음

요한 16,12-15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삼위일체를 기리는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주님 부활의 영광을 굳게 믿으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전쟁과 폭력이 심해지는 세상을 살피 주시어, 악을 악으로 갚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선으로 이겨냄으로써 주님의 참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3. 아켄 전담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총의 주님, 당신의 거룩한 사제직을 수행하는 김성인 미카엘 사제를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아켄의 여러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주님께서 늘 사제의 지혜와 용기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 속한 모든 풍성함으로 채우시어 양 떼를 돌봄에 필요와 힘이 되어 주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 중동 한인 공동체에 은총을 베푸시어, 언제나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 영성체송

갈라 4,6 참조

[아캠] 전담 사제 휴가 일정

아캠 전담 사제이신 '김성인 미카엘 신부님' 휴가 일정입니다.

- ▶ 여름 휴가 : 6월 16일(월) ~ 7월 17일(목)
- ▶ 로마 순례 : 7월 20일(주일) ~ 8월 4일(월)
(남아라비아 대목구 대표로 세계 청년 대회
사전 준비 회의 및 로마 성지 순례)



※ 이 기간 중에도 아부다비 / 두바이 공동체의 한인 '미사'는 지속됩니다.

※ '아캠 주보'는 이 기간 중 발행되지 않으며, 연중 제19주일 주보(8월 10일, 219호)부터 발행이 재개됩니다.

[아부다비] 복사단 수료식

Altar Serving



- ▶ 수료식 : 6월 14일 (토), 12:00 공소 예식
- ▶ 대상자 : 김현준 라파엘 / 오하윤 레아 (2명)

[교회] 교황님 6월 기도 지향



6월: 세상을 향한 연민

우리가 저마다 예수님과 맺는 인격적 관계에서 위로를 얻고, 예수 성심께 세상을 향한 연민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부다비 공동체> 파올로 마르티넬리 주교님 사목 방문



6월 5일 ~ 6월 9일

<아부다비 공동체> 복사단 회합



6월 6일 10:00 am



Congratulations.

함께하며, 하나되며
중동한인
AKCCME가
통리
공동체
모습들



<아부다비 공동체> 견진성사

‘김현준 라파엘’, ‘백상현 레오’, ‘백소현 첼리나’, ‘이동건 도미니코’ 견진을 축하드립니다~!!!



6월 6일 7:00 pm



2025년 '희년' 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Franciscus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번역)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현존 50주년 준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이집트 종살이하던 당신 백성을 부르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나이다.(탈출 13,21)

참된 자유를 찾아 광야를 걸었던 2000년 전 당신 백성처럼
이곳 광야에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현존 50주년을 향해 순례하는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말씀과 성체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이웃 안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중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의 보호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뵈옵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아라비아의 성모 마리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예수 성심 성월 기도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내신 주님,
저희가 모두 주님을 닮게 하소서.
- 사랑으로 하나 되신 주님처럼
저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 한 핏줄 한 겨레이면서도 서로 혈통고 싸웠던
저희 잘못을 깨우쳐 주소서.
-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 인류의 일치를 바라시는 주님,
갈라져 사는 저희 겨레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소서.
-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하시어
겨레의 일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가진 바를 나누게 하소서.
-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소서.
- 온 겨레가 주님을 믿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평화의 모후이시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이며,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의심없이 믿어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선배 신앙인들은 믿음은 한 치의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복음에 나오는 토마스 사도의 경우를 들곤 합니다.

물론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간 공동체는 분란으로 인해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에는 심리적으로 하자가 많습니다. 즉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심리적 구조를 가진 존재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토마스 사도를 믿음이 약한 자라고 질책을 하신 것인가? 토마스 사도는 주님을 따라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격상 불신감이 강해서 교정해 주시고자 야단을 치신 것이지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선 우리가 갖는 의심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께서는 “신앙인은 의심을 가지고 믿는 자와 의심으로 인해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의 한계성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또 마더 데레사 성녀도 당신의 일생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의심의 반복이었다”라고 고백하신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의심은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종교인은 “의심은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유혹이다”라고 말해서 의심에 시달리는 신자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의심이 의심 자체로 끝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이란 물음을 의미하고 물음은 더 공부할 것을 촉구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의심은 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촉진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없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심 없이 믿기만 한다면 유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며 자아가 성장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구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구도자들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에 늘 주님께 물음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사회는 흐르는 물처럼 되어갑니다.

그러나 물음 없이 복종하고 맹목적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공동체는 고인물처럼 되어버려서 경직된 도덕관으로 인해 융통성 없는 조직으로 변질되고 퇴행해버리고 맙니다. 더욱이 그 개인은 내사(內事)라는 심리적 독성이 생겨서 평생을 심리적인 노예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의심과 물음은 내적성장에 필수적인 것이라 하는 것이니 믿음이 약하다고 의심을 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수난 중에 아버지를 부르면서 어찌하여 당신을 버리시느냐고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글: 공지영 마리아(작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배달하 필립보 신부님을 내 젊은 날 주말마다 가던 시골집의 본당 신부님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두고두고 생각해도 행운이었다. 당시 고3이던 딸이 나의 성화에 못 이겨 주일 미사에 참례했다가, 신부님의 강론에 감동하여 고3인데도 바로 예비자 교리반에 등록해서 세례를 받은 것도 그분의 훌륭하고 좋은 강론 때문이었다.

그분의 여러 가지 좋은 강론 중에서 기도에 대한 것은 아직도 내게 선명히 남아 있다. 탈출기 17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싸우는 동안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려놓으면 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모세는 지치기 시작했고 자꾸 손이 내려가자, 사람들이 그를 앉히고 양쪽에서 그의 손을 억지로 받쳐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나는 이 구절이 무슨 소린지 몰랐다. 특히 구약에 보면 '이런 걸 왜 성경에 썼을까' 싶은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신부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강론하신 것이었다.

"무엇이든지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는 것이 인간의 이치입니다"라는 말로 강론은 시작되었다. "스포츠도 등산도 요리도, 하다못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매 맞는 행위라도 소위 이골이라는 게 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는 해도 해도 힘들어요. 이 모세의 행위는 기도에 대한 말입니다. 기도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도 좋지만 정말 힘들면 억지로 남에게 끌려서라도 하라는 말이에요. 이 구절은 그런 뜻입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을 때 언제나 그렇듯, 가슴이 작게 쿵쿵 뛰었다. 기도에 어려움을 겪던 나에게, '왜 나는 묵주기도를 하는 동안 잡념의 잔치를 벌이는 것일까?' 죄스럽던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서였다. 이 강론은 후에 아빌라의 데레사의 거둬기도라는 것에서 더 뚜렷하게 들려왔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기도하려는 의지를 보신다. 기도하는 시간이 힘겹고 아무 감동이 없어도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려는 '사랑의 선택' 자체를 받으신다."

운전할 때나 여행할 때 늘 묵주기도를 하곤 하는데, 가끔은 '내가 어디까지 했지' 싶을 때가 있다. 그때는 내가 의식적으로 했던 묵상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곤 하는데, 한번은 어떤 나눔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묵주기도는 묵상이야. 그렇게 양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묵주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야?"하고 누군가 묻기도 했다. - 대체 이 바리사이 자매들은 어디에나 있고, 꼭 제때 나타난다! -

가끔은 그런 말들에 기운이 빠져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싶지만,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님의 말씀대로 '하느님은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시는 거'라는 말씀에 힘을 내곤 한다. 가끔 누군가가 묻는다. '기도하면 믿어지나요? 믿어져야 기도하나요?'

나는 대답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그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기도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늘 당신을 마음속에 그리고 매 순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혹시나 - 그럴 리가 없지만 -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무엇을 주랴. 하나만 말해보라" 한다면 저는 대답할 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요즈음 하느님은 내 기도를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어린 시절과는 달리, 마음이 그리 상하지 않는 것은 그 지루한 양의 기도를 통해 나의 믿음이 아주 작게 자랐기 때문이리라고 생각한다. 그분은 언제나 내 바람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그렇다. 그래서 가끔은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깨닫게 되었기에 말이다.

가로세로 낱말퀴즈 제 4 호 정답 공개

콘	클	라	베		파	스	카	성	야
			르					모	
	호	산	나	자	렛			칠	
			데					고	
			트						
				예	루	살	렘		
레	오	메	가		치			성	전
	순				아			금	구
	절							요	
		주	님	승	천	대	축	일	

Congratulations!

당첨자: 윤민정 세실리아 (두바이 공동체)

정답자: <두바이 공동체>

차연경 모니카

박수경 마르가르타

윤민정 세실리아

<아부다비 공동체>

장성자 효주아네스

손해경 소피아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뱅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GULF KOREAN TIMES 걸프 코리아 타임즈 • 중동 대표 한인 교민 신문 •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즈니스 홍보 & 마케팅 기회 제공 • 외국 커뮤니티와의 협력, 유대 기회 정미숙 라파엘라 (광고 문의) (+971) 50 461 3991 /  : @gktmedia
--	---	---